

美 “北 경제상황 호전...개혁 부분적 효과”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일부 주민들 생활 수준 향상”

“북·중 관계 2013년 이후 더 악화...김정은 체제 공고”

올해 초부터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일부 주민의 생활수준도 향상되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평가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최신 북·미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올해 초부터 북한이 약간의 경제성장(modest economic growth)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작년 발표된 일련의 임시 경제개혁이 일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상황의 개선과 관련해 미국의 공식적 평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북한: 대미관계, 핵외교, 내부상황”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의회조사국은 “북한 산업과 농업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려는 개혁조치들이 북한 경제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며 “도시에는 관리자들이 봉급을 정하고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농촌에서는 농부들이 수확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생산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의 개혁조치가 취해졌다”고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김정은 정권이 공인되지 않은 대부분 소기업이나 노점상 등 지하경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조사국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런 개혁들이 소규모인데다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빈사 상태의 북한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농업개혁에 대해서는 “2013년과 2014년 이래적으로 대규모 수확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중반 발생한 가뭄으로 이런 수확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지원 단체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도 가뭄구제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으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안보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김정은이 북한 체제의 정점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도 “김정은 정권 수립 후 100여 명의 고위 군사·행정관료들이 교체 또는 숙청됐다”는 한국 정보소식통의 분석을 소개했다.

북·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년간의 동향과 비교해봤을 때 북·중 관계는 2013년 이래로 크게 악화됐다”며 “특히 중국 지도자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중국의 인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의회조사국은 “물론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정책적 목표에 여전히 장애가 되고 있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해 보다 강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시도는 차단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중국의 대북 무역과 원조는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수준의 일부(a fraction)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바마, 케냐 군중앞에서 연설

케냐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수도 나이로비의 카사리니 스포츠 경기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4500여명의 군중이 모인 이날 오바마는 “케냐 젊은이들이 성취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우리 아들 왔다” 오바마 방문에 들뜬 아프리카

흥분한 케냐인들에 이어 에티오피아인들도 큰 기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아프리카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케냐를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에티오피아로 건너갔다. 케냐 국민은 부친의 모국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자주 불렀다. 하지만 케냐를 떠나기 전 오바마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연설은 아들이라기보다 정이 많고도 엄격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고 NYT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케냐인의 삶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악으로 규정하고 개선을 촉구했고, 이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식민 잔재의 청산과 그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잠재력도 역설했다.

그는 “영국 군대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우리 할아버지는 어른이 됐음에도 ‘보이’로 불렸다”며 “오늘날 젊고 야망 있는 케냐의 젊은이들은 더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외국의 주인을 모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교육을 받고 기회를 찾기위해 케냐를 떠날 필요가 없다. 케냐의 발전, 여러분의 잠재력으로 바로 이곳에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환호가 터져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도 실현되기를 고대했다.

NYT는 오바마의 이날 연설은 케냐인을 위해 열렸으나 그 울림이 아프리카 대륙의 작은 마을 하나하나에까지 퍼졌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케냐의 열풍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방문국인 에티오피아에서는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기대가 부풀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인권운동가 엘라니 젬베레는 “오바마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찾아온다”며 “오바마가 선거제도 개혁,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패전 70년 日 TV 특집 프로그램들

식민지배 등 ‘가해 사실’ 몰타기 혈안

내달 15일 종전 70년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일본의 특집 TV 프로그램들이 ‘수상’하다.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등 ‘가해 사실’에 대한 성찰보다는 패전국으로서 받은 처우와 전후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강조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25일 저녁 민방인 TV아사히가 방영한 교양 프로그램 ‘이케가미 아키라의 뉴스 그랬었군요’는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일본 명 도코 재판)을 정면으로 다뤘다.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 한 명인 이케가미 아키라(池上彰)가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시종 도코 재판의 ‘부담’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절대 다수의 재판관이 전승국 출신이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태평양전쟁에 국한하지 않고 만주사변(1931년) 등 그 이전 행위까지 단죄하는 등

‘사후법(事後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지적 등이 잇달아 소개됐다.

공영방송인 NHK가 지난달 19일 ‘전후 70년 일본의 초상’ 시리즈의 하나로 방영한 ‘신뢰 회복의 길’은 한일의 중대 현안인 군위안부 문제를 다뤘지만 ‘균형 감각’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아시아 피해 국가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아직 갈길이 멀다는 점을 결론부에 거론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보다는 그간 일본이 해온 해결 노력과 아시아 각국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교양 프로그램 뿐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피해자 감성’을 자극하는 대목이 있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TBS 드라마 ‘천황(일왕)의 요리사’ 최종회(12일 방영)에서는 연합군총사령부(GHQ) 인사 왕실 요리사를 비인간적으로 다루는 장면이 등장했다. /연합뉴스

日 언론 여론조사서 ‘아베정권 민심 이탈’ 확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으로부터 민심이 이탈하는 것이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2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이달 초 조사 때보다 9% 포인트 늘어난 49%였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6% 포인트 감소한 43%였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하고 나서 이뤄진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답변보다 많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TV 도쿄와 같은 기간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도 아베 총리 재집권 후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확인됐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들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증가한 50%를 기록했고 지지한다는 반응은 9% 포인트 줄어든 38%였다.

앞서 교도통신, NHK, 아사히(朝日)신문, 마이니치(毎日)신문, 산케이(産経)신문·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벌인 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방콕, 물에 잠길 수도 있다”

태국국가개혁위 보고서, 해수면 상승·지반 침하 경고

태국 수도 방콕이 해수면 상승, 지반 침하 등으로 자칫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가개혁위원회(NRC)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타이 만의 해수면이 상승하는데다 부분별한 지하수 남용과 고층 건물 난립 등으로 지반이 침하해 방콕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콕은 타이 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짜오프랴 강 하구에서 약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도시 안팎의 해발 고도가 0.5~2m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타이 만 해수면이 상승하면 만조와 홍수로 짜오프랴 강 수위가 상승하면 방콕 일부 지역에서 침수 현상이 빈번할다.

보고서는 방콕의 침하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하수의 재생성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지하수 남용, 고층 건물의 증가를 꼽았다.

NRC는 이른 시일 안에 예방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르면 향후 20년 내에 방콕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NAVER 주소(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 大山프리모가발